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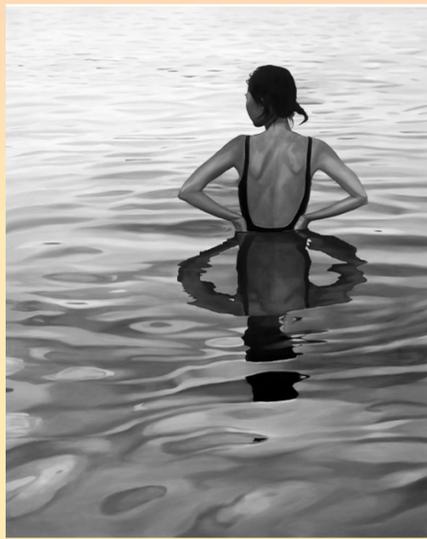
‘여름의 청춘, 청춘의 여름’ 미술관 바캉스 떠나요

내달 26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김은영·싸비노·오타 등 6인 참여
시원함 가득한 회화 등 47점 선배
여름휴가 떠나 일상적 풍경 눈길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여름과 청춘을 주제로 한 기획전 ‘Youth of Summer(여름의 청춘, 청춘의 여름)’를 오는 8월 26일까지 개최한다. 김은영, 싸비노, 오타, 이우성, 정고요나, 함주해 등 6인이 참여하며 싱그러운과 시원함 가득한 회화, 영상작품 47점을 선보인다.

청춘(靑春), 푸른 봄이라는 어원이 무색하게 젊음의 속성은 따뜻한 봄보다는 뜨거운 여름을 떠올리게 한다. 때로는 사소해 보이는 일에 모든 것을 걸어보고, 일상에서 벗어나 훌쩍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 시기. 과감함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사랑의 감정이 피어오르고, 서로의 마음이 닿았을 때의 짜릿함과 어긋났을 때의 슬픔이 공존하는 시기. 수많은 도전과 좌절, 사랑과 우정, 다툼과 화해까지. 이 모든 경험이 쌓여 만들어지는 청춘이 이번 전시의 주제다.

정고요나 작가의 작품은 당장이라도 여름휴가를 떠난 듯한 풍경이 펼쳐진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한 정고요나 작가는 10회의 개인전을 개최하고 금호미술관, 토탈미술관 등에서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며 창작활동을 이어왔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디지털화 되는 개인의



정고요나 작 감정의 온도. 광주신세계갤러리 제공

사회관계 ‘Socializing’의 변화가 최근 작업의 주제다. 사회적 네트워크에 자신을 노출하며 온라인상에서 관계맺는 디지털화된 현대인들의 소통 방식을, 회화를 통해 담아내고 있다. 그에게 청춘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시기.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등을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다.

오타 작가의 작품은 청춘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상태, 그러한 만큼 늘 불안과 설렘이 교차한다. 인천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후 모션그래피스튜디오 아트디렉터로 활동한 오타 작가는 2022년부터 2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을 통해 본격적으로 회화 작업을 시작했다. 캔버스에 담긴 다채로운 색은 청춘의 찬란하지만 불안한 모습을 나타낸다. 어둠 속에서 밝은 색을 찾아내며 고단한 삶 속에서도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를 표현한다.

김은영 작가의 작품은 불안과 고독을 함께 품고 있다. 대구대학교 회화과와 미술·디자인학과 석사 졸업한 김은영 작가는 4회의 개인전을 개최하고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며 창작활동을 이어왔다. 그의 그림은 끊임없이 타인들에게 섞여들고자 했지만, 그럴수록 밀려나고 걸들었던 개인의 서사로 이루어져 있다. 어딘가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어디로 돌아갈지 모르고 방황하고 서성이던 이들에게 작은 위로를 전한다.

함주해 작가의 그림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진 평범한 일상의 모습을 담고 있다. ‘아름답고 지루한 날들을 그림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함주해 작가는 ‘패스트라이브즈’, ‘드라이브 마이카’ 등 여러 영화의 스페셜 포스터와 ‘25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포스터를 그렸다.

이우성 작가는 일상을 사실적으로 그려낸다. 그는 홍익대학교 회화과 학사, 한국예술종합학교 평면전공 전문사를 졸업했으며 ‘생활과 미술’이라는 주제로 드로잉, 회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

한 매체를 그린다. 삶의 주변에 자리했을 대상을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해 자신의 사적인 순간이 그림을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 닿기를 기대한다. 8회의 개인전을 개최하고 광주비엔날레, 부산현대미술관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싸비노 작가가 만든 해변의 풍경은 청춘의 여름을 전시장 외부까지 ‘신세계 아트월 프로젝트 9’로 확장한다. 조선대학교에서 만화·애니메이션을 전공한 정승준 작가는 일러스트레이터 ‘싸비노’로서 4회의 개인전을 개최하고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네이버, 웨이크썬, 쏘카, GMC,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기술원, 서울디자인재단 등 다양한 기업, 단체와 협업을 통해 창작영역을 확장해 온 그는 여행과 일상에서 만나는 풍경 속 낮은 대상에 새로운 색을 입혀 새로운 영감의 원천을 만들고자 한다.

도선인 기자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안녕! 영화제’ 발대식

10월 15일 광산문화예술회관 개막

시청자미디어재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광주센터)는 제4회 발달장애인 안녕! 영화제 발대식을 지난 4일 진행했다.

영화제는 오는 10월 15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발대식은 광주지역발달장애인복지협회 광산구지부, 광산구청, People first 다짱, 광산구장애인복지관, 문화콘텐츠그룹 잇다 등 총 5개 기관과 함께 했다.

올해 4회째를 맞은 이번 영화제의 슬로건 ‘나의 레드카펫’이다. 레드카펫은 배우나 감독 등 영화제의 주인공들이 밟는 붉은 길로 격식과 예우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번 영화제에 참여하는 발달장애인 모두가 ‘내가 지금 이 자리의 주인공’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광주센터는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영화로 담기 위한 창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에는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내 발달장애인학생들과 함께 ‘안녕! 영화 제작교실’을 운영한다. 영화제 출품 및 상영을 목표로 7월부터 12회차에 걸친 교육이 진행된다.

이처럼 이번 안녕! 영화제는 우리 지역 발달장애인이 직접 출연하거나 제작한 창작물 총 9편이 상영되며, 모든 작품은 장애와 상관없이 누구나 관람가능한 배리어 프리영화로 제작·상영할 예정이다. 관람료는 무료이다. 영화제는 오는 10월 15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며 영화 상영 외 다양한 부대행사도 있을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영화제 사무국(062-945-8568·gs8564@naver.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선인 기자

ACC재단,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지역연계 공연 개최

23~24일 ‘사랑에 빠진 뽀메로’
8월 10~11일 ‘햇살 따뜻한...’

여름방학을 맞아 자연을 소재로 한 따뜻한 감성의 해외 우수공연 2편이 지역 어린이 관객들을 찾아온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7월과 8월 2024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해외 우수공연 2편을 ACC 어린이 문화원 일대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가 주최하는 ‘2024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는 국내 대표 어린이청소년 예술공연 축제로, 올해는 7월 18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대학로예술극장 등에서 개최된다.

지역연계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ACC공연은 7월 23~24일 ACC 어

린극장에서 캐나다 퀘벡 음브레 폴의 ‘사랑에 빠진 뽀메로(Pomelo)’, 8월 10~11일 ACC 어린이창작실험실에서 체코 때렌의 ‘햇살 따뜻한 오후에 찾아온 특별한 손님(Little Visitors)’이 관객을 만난다.

‘사랑에 빠진 뽀메로’는 흥내를 가득한 채소밭 속 민들레 아래에서 태어난 뽀메로의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본 계절의 변화를 다룬 이야기다. 이 작품은 동명의 프랑스 인기 동화책 ‘사랑에 빠진 포메로’(라모나 바데스키 글·벵자맹 쇼 그림)를 원작으로 한다. 어린이의 모습과 닮은 뽀메로만의 유머와 감수성으로 그가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ACC 어린이극장에 자연의 향기를 흠뻑릴 예정이다.

이어 ‘햇살 따뜻한 오후에 찾아온 특별

한 손님’은 공연과 전시가 결합돼 4세 이상 미취학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작품이다. 다채로운 물감을 만드는 예술가의 집에 초대받은 관객들은 별도의 설명 없이도 공연에 몰입하여 색이 만들어지는 순간과 표현되는 방식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사랑에 빠진 뽀메로’는 36개월 이상을 대상으로 7월 23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24일 오전 11시 등 총 3회 공연되며 관람료는 1만5000원이다.

‘햇살 따뜻한 오후에 찾아온 특별한 손님’은 8월 10일과 11일 각각 오후 1시와 4시 등 총 4회 공연된다. 관람료는 2만 원으로 4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관람권은 ACC재단 누리집(www.accf.or.kr)에서 구입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광주의 사라진 호수 ‘경양방죽’으로 여행

핀스토리 ‘이무기는 방울방울’
20일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핀스토리가 연극 ‘이무기는 방울방울’을 오는 20일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공연한다.

광주의 사라진 호수 ‘경양방죽’을 소재

로 기존의 재미보은설화와 이무기설화 등의 내용을 덧붙인 창작극이다. 배우들의 연기뿐만 아니라 악사들의 춤과 노래, 미디어아트, 그림자극, 탈극 등의 다양한 형태의 공연예술도 펼쳐진다.

과거로의 여행이라는 테마에 맞춰 공연장 곳곳에 전래놀이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입장 전에 체험 해 볼 수 있다. 또

사전에 어린이 대상으로 경양방죽을 주제로 한 그림공모를 진행했으며 접수된 그림을 엮서 및 스티커등의 굿즈로 제작해 관객에게 배포한다.

공연은 광주시문화자산콘텐츠제작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됐다.

공연은 오는 20일 오전 11시, 오후 3시 두 차례 예정돼 있다. 전석 만원이며 플레이티켓을 통해 예약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010-5683-8412)로 문의.

도선인 기자